



11월의 주크박스

매달 테니스계 화제의 인물을 모아 그들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하는 주크박스 코너!
이번 달에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선수의 희로애락을 함께 음악으로 풀어낼지 편안히 함께 즐겨보자.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노래의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글_전채향 객원기자



조 윌프리트 송가(프랑스)

추천곡

Kygo & Whitney Houston의 〈Higher Love〉

코트의 '해피 바이러스' 송가는 팔팔 넘치는 에너지로 코트를 휘젓고 다녔으나 어느새 34살의 백전노장이 되어버렸다. 지난해 왼쪽 무릎 수술로 오랫동안 코트에 나서지 못하며 세계 랭킹이 210위까지 떨어졌던 그가 올해 초 마르세유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후 또다시 자국에서 열린 메츠오픈에서 우승하며 통산 18번째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송가는 올해 11회째를 맞는 메츠오픈에서 무려 4차례나 우승했다. 더 신기한 사실은 송가가 보유하고 있는 18개의 타이틀 중 10차례를 홈에서 획득했다는 것! 한때 코트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불퍼슨까지 챙겨주던 마음씨 착한 송가 앞으로도 흥하길!!!

〈가사〉 생각해봐, 어딘가에 더 큰 사랑이 있을 거야. 마음 속 아니면 별들 속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쓸데없는 시간인 거야.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봐. 나도 그럴 테니.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해줘

소라나 크르스테아(루마니아)

추천곡

Robyn의 〈Ever Again〉

2008년 18살의 나이로 타슈켄트오픈에서 생애 첫 WTA 투어 단식 우승을 차지한 이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어 우승을 못 이룰지 누가 알았을까. 2013년 로저스컵에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무려 6년 만에 다시 결승전에 오른 크르스테아. 자신의 첫 투어 우승을 안겨줬던 타슈켄트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이루며 마무리하려 했으나 풀 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며 생애 두 번째 단식 우승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다. 매년 찾아오는 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수시로 100위권을 넘니들며 다소 고생스러운 투어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준우승이 그녀에게 희망을 안겨준 작은 선물이 되었길 바라본다.

〈가사〉 내 마음은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절대로 다시는. 나는 앞으로 사랑에 대해서만 노래할 거야. 영원히. 나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전부가 되진 않을 테니. 다시 한번 약속해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것으로



앨리슨 리스크(미국)

추천곡

Pink(feat Cash Cash)의 〈Can We Pretend〉

공을 칠 때마다 '와이!'라는 생소한 고향(?) 또는 비명(?)으로 팬들 사이에서 앨리슨 '와이' 리스크라고 불리는 늦깎이 스타 리스크! 2009년 프로에 데뷔했으니 올해로 벌써 11년 차. 20살이 되던 해 본격적으로 프로에 뛰어들어 이후 2014년 중국 텐진에서 열린 대회에서 생애 첫 투어 우승을 기록했다. 이후 유독 결승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텐진 대회 우승 이후 무려 6회 연속 결승에서 패하는 불운의 스타로 등극하기도 했다. 9월 우한오픈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세계 20위에 오르며 커리어 하이 달성했다. 노력파인 그녀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해본다!

〈가사〉 그때의 대화를 기억해. 우린 테이블 위에서 춤을 쳤었어. 포스팅 할 일없는 그 시절에 사진을 찍곤 했지. 너는 웃고 나는 울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던 지난날. 우리가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